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

김찬미¹⁾, 권승준¹⁾, 김채은¹⁾*, 박영하¹⁾, 서민정¹⁾, 엄동수¹⁾, 조영협¹⁾
이인수²⁾

요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15개 대학 응급구조(학)과 3,4학년 99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는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임상실습은 질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중요한 요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부생(제1공동저자)

2)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교신저자)

소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 대하여 현장치료(field treatment), 상담, 이송 등의 실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이론으로만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는 시뮬레이션 수업과 임상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임상실습은 임상현장에서 숙련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제 상황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교육으로서 이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지식, 술기 및 태도 등은 다른 교육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과정이다(이영미, 소연희, 안덕선, 박승하, 2002).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환자를 마주하고 기본 술기를 관찰하거나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기에(최손환, 정한별, 2015)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임상실습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병원 임상실습에 대하여 ‘만족한다’가 8.5%, ‘불만족한다’가 30.5%로 불만족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전화연, 김걸, 안흥기, 1999). 실제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애매모호한 자신의 역할,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의 반복, 학교 실습과 병원 실습과의 차이, 의사·간호사와의 관계, 실습시작 전 병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제공 정도의 차이 등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전화연, 김걸, 안흥기, 1999). 이렇게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동안 겪는 스트레스는 응급구조

학과 학생들에게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한 불만족이나 좌절감을 겪게 한다(백미래, 2003).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표현능력이나 자기 확신 등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인 기술 등이 높게 나타난다(Coopersmith, 1967).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되어 있다(김덕원, 김예림, 2020).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양선이, 2015).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또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 임상실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황성자, 2006). 현재까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같은 보건계열인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임상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숙, 2022).

지금까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응급환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꾸준히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 질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자

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3)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의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3년 1학기 현재 전국의 15개 대학 응급구조(학)과 재

학 중이면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적이 있는 3학년과 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학생 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안 수정한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서 부정적인 문항 5개는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3 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Scale, SES)을 홍혜영(1995)이 번안하여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는 것이다. 본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정적인 문항 13개는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 이었다.

3)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와 Srivastava(1991)가 개발하고 김순례

와 이종은(2005)이 번안한 총 24개 문항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 영역은 실습 교육 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6문항, 실습 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ornbach’s α 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 이었다.

4. 자료 수집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SNS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읽은 후 참여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windows(ver. 2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는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사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하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61명(61.6%)이 여자인고 38명(38.4%)이 남자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4학년 69명(69.7%), 3학년 30명(30.3%)였다. 실습병원 수는 2개 67명(67.7%), 1개 23명(23.2%), 3개 이상 9명(9.1%)였다. 지원동기는 적성에 맞아서 56명(56.6%), 기타 22명(22.2%), 성적에 맞춰서 11명(11.1%), 취업률 6명(6.1%), 권유 4명(4%)였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65명(65.7%), 보통 32명(32.3%), 불만족 2명(2%) 이었다. 실습만족도는 만족 47명(47.5%), 보통 46명(46.5%), 불만족 6명(6.1%) 이었다. 스트레스 요인은 교대 근무 및 수면 패턴 31명(31.3%), 경제부담 26명(26.3%), 과제부담 19명(19.2%), 사회생활 17명(17.2%), 없음 4명(4%), 불화 2명(2%) 이었다. 학업성적은 3.5이상~4.0미만 36명(36.4%), 4.0이상 27명(27.3%), 3.0이상~3.5미만 25명(25.3%), 3.0미만 11명(11.1%) 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9

변수	구분	n(%)
성별	남	38(38.4)
	여	61(61.6)
학년	3학년	30(30.3)
	4학년	69(69.7)
실습병원 수	1개	23(23.2)
	2개	67(67.7)
	3개 이상	9(9.1)
지원동기	적성	56(56.6)
	취업률	6(6.1)
	성적	11(11.1)
	권유	4(4.0)
	기타	22(22.2)
전공만족도	만족	65(65.7)
	보통	32(32.3)
	불만족	2(2.0)
실습만족도	만족	47(47.5)
	보통	46(46.5)
	불만족	6(6.1)
스트레스 요인	경제부담	26(26.3)
	불화	2(2.0)
	과제부담	19(19.2)
	사회생활	17(17.2)
	교대 및 수면	31(31.3)
	없음	4(4.0)
학업성적	3.0미만	11(11.1)
	3.0이상 ~3.5미만	25(25.3)
	3.5이상 ~ 4.0미만	36(36.4)
	4.0이상	27(27.3)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최소값 1.30점, 최대값 3.90점, 평균 $3.0586 \pm .52664$ 이고, 자기효능감 점수는 최소값 2.35점, 최대값 4.87점, 평균 $3.5191 \pm .59345$ 이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최소값 1.17점, 최대값 4.25점, 평균 $2.3897 \pm .58528$ 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N=99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1.30	3.90	3.06 ± .53
자기효능감	2.35	4.87	3.52 ± .59
임상실습 스트레스	1.17	4.25	2.39 ± .59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표 3과 같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2.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불만족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2.56, 만족인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는 2.2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352, p=.003$).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그룹은 만족인 그룹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불만족인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2.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통인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2.52, 만족인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2.21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468, p=.014$). 임상실

습 만족도가 만족인 그룹은 보통과 불만족 대상자의 그룹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남자는 2.46점 여자는 2.34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994, p=.323$). 학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3학년의 스트레스 점수는 2.43점, 4학년의 스트레스 점수는 2.37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471, p=.638$). 실습병원 수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3개 이상의 스트레스 점수는 2.56점, 2개의 스트레스 점수는 2.43점, 1개의 스트레스 점수는 2.21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507, p=.227$). 지원동기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권유의 스트레스 점수는 2.81점, 취업률의 스트레스 점수는 2.58점, 기타의 스트레스 점수는 $2.55 \pm .64$ 점, 성적의 스트레스 점수는 2.38점, 적성의 스트레스 점수는 2.28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621, p=.175$). 임상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불화는 2.60점, 과제부담은 2.60점, 사회생활은 2.49점, 경제부담은 2.40점, 없음은 2.39점, 교대 및 수면은 2.21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270, p=.284$). 성적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3.0 미만은 2.60점, 3.5 이상 4.0 미만은 2.48점, 4.0 이상은 2.37점, 3.0 이상 3.5 미만은 2.22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697, p=.17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

N=99

변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t(F)	p	Scheffe test
성별	남자	2.46±.66	.994	.323	
	여자	2.34±.54			
학년	3학년	2.43±.63	.471	.638	
	4학년	2.37±.57			
실습병원 수	1개	2.21±.50	1.507	.227	
	2개	2.43±.61			
	3개 이상	2.56±.60			
지원동기	적성	2.28±.54	1.621	.175	
	취업률	2.58±.74			
	성적	2.38±.58			
	권유	2.81±.46			
	기타	2.55±.64			
전공만족도	만족a	2.25±.56	6.352	.003	a<b
	보통b	2.67±.56			
	불만족c	2.56±.15			
임상실습 만족도	만족a	2.21±.50	4.468	.014	a<b, a<c
	보통b	2.52±.64			
	불만족c	2.71±.44			
임상 스트레스 요인	경제부담	2.40±.53	1.270	.284	
	불화	2.60±.74			
	과제부담	2.60±.59			
	사회생활	2.49±.55			
	교대 및 수면	2.21±.64			
	없음	2.39±.43			
학업성적	3.0미만	2.60±.80	1.697	.173	
	3.0이상~3.5미만	2.22±.63			
	3.5이상~4.0미만	2.48±.53			
	4.0이상	2.37±.48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712$, $p<.001$),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45$, $p<.001$).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40$, $p<.01$).

<표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

	자아존중감 r(p)	자기효능감 r(p)	임상실습 스트레스 r(p)
자아존중감	1		
자기효능감	.712 ($p<.001$)	1	
임상실습 스트레스	-.345 ($p<.001$)	-.440 ($p<.001$)	1

IV. 고 찰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05/4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타 보건계열과 비교하자

면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2.87/4 점보다 높았으나(채민정, 최길순, 201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3.09/4점(김경화, 김은심, 2012)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3.51/5점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의 연구에서 실습 중인 2학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인 3.70/5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2009). 또한 실습을 마친 3,4학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3.00/5점으로 나타나, 응급구조학과 3,4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소명, 박상연, 2014). 학년이 올라가면서 보건계열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학년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2.38/5점으로 나타났다. 타 연구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67/5점으로 본 연구결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채, 박정희, 최효원, 김진영, 2022). 또한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36/5점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은 응급실, 중환자실을 위주로 이루어 지는 반면 간호학과는 병원 내의 다양한 곳에서 실습을 하는 차이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년, 실습병원 수 및 응급구조학과 지원동기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실습병원 수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김민채, 박정희, 최효원, 김진영, 2022),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응급구조학과 지원동기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확인하였다. 치위생학과 대학생은 지원동기가 성적인 경우, 취업, 적성, 기타의 지원동기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오나래, 김해경, 2019),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반복연구 등을 통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성별, 학년, 실습 병원 수 및 지원동기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검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실습학생 간 불화 2.60/5점, 과제부담 2.60/5점, 사회생활 2.49/5점, 경제부담 2.40/5점, 없음 2.39/5점, 교대 및 수면 평균 2.21점/5점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요인 정도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교대근무 2.68/5점, 과제 2.71/5점, 동료학생과의 관계 2.20/5점으로 나타났고 교대근무를 포함한 환경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전화연, 김걸, 안홍기, 1999). 이에 대해 사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학업성적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3.0미만 2.6점/5점, 학점 3.0이상~3.5미만 2.22점/5점, 3.5이상~4.0미만 2.48점/5점, 학점 4.0이상 2.37점/5점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성적항목을 좋음, 보통, 나쁨으로 평가한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김덕원, 김예림, 2020). 선행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성적항목은 좋음, 보통, 나쁨이라는 주관적인 단어로 선정하였기에 본 연구와 완벽하게 동일 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그룹이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그룹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2.6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불만족, 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전화연, 김걸, 안흥기, 1999).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만족한 그룹은 보통인 그룹 및 불만족인 그룹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만족 2.71/5점, 보통 2.52/5점, 만족 2.21/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임상실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전화연, 김걸, 안흥기, 1999).

본 연구결과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나왔고, 이는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검증되었다(김명숙, 2011; 황성자, 2006). 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임을 지각하도록 돕고,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대학교육 차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황성자, 2016).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연구도구는 다르나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김영숙, 김명순, 조원순, 2002).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김덕원, 김예림, 2020),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박숙경, 2021).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3년 1학기 15개 대학 응급구조(학)과 재학 중인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을 99명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

레스는 임상실습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내·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라는 두 가지의 변수만 단순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추가적으로 관련 변수를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 비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요인들도 조사·파악하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들의 관련성을 모색하는 총괄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임에 본 연구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가 없어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개발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응급구조학과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의미를 파악할 때 또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가 불충분하여 제한적이었다.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다른 현 시점에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맞추어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실습을 경험한 응급구조(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얻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99부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3.06/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3.52/5점, 임상실습 스트레스 평균 점수 2.39/5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는 전공만족도($t=.994, p=.323$), 임상실습 만족도($t=1.270, p=.284$)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712, p<.001$),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45, p<.001$).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40, p<.001$).

이에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 전략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

료되며, 이를 통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향후 1급 응급구조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응급구조학과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이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경감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정미 (2017).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감성지능의 역할. 대한스트레스학회, 25(2), 120-127.
- [2] 김경화, 김은심 (2012).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아존중감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4(3), 1519-1533.
- [3] 김덕원, 김예림 (2020).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및 자아존중감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1(5), 1675-1688.
- [4] 김명숙 (2011).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59-167.
- [5] 김명숙, 김명순, 조원순 (2002).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51-60.
- [6] 김민채, 박정희, 최효원, 김진영 (2022). 응급구조학 전공학생의 공감능력, 자기조절능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급구조학회지, 16(3), 149-159.
- [7] 김소명, 박상연(2014). 간호대학생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 16(6), 3409-3421.
- [8] 김순례, 이종은 (2005).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98-106.
- [9] 김영숙 (202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그릿,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9), 451-460.
- [10] 김영희 (2009).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6(3), 307-315.
- [11] 김예림, 김덕원 (2021).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병원 실습 자기효능감, 응급구조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비교. 인문사회 21, 12(6), 165-176.

- [12] 박숙경 (2021).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지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6), 221-234.
- [13] 백미례 (2003). 응급구조과 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7(1), 95-108.
- [14] 양선이 (2015). 간호대학생의 감성 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6), 370-378.
- [15] 오나래, 김혜경 (2019).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영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463-471.
- [16] 이영미, 소연희, 안덕선, 박승하 (2002). 임상실습 교육과정 평가. 한국 의학교육, 14(2), 293-300.
- [17] 전병재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4.
- [18] 전화연, 김걸, 안흥기 (1999). 응급구조과 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응급구조학회지, 3(1), 43-54.
- [19] 채민정, 최길순 (2012).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 -응급구조과와 공과계열 학생 간 비교-, 한국응급구조학회지, 16(1), 53-63.
- [20] 최길순, 이창희 (2012).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급구조학회지, 16(3), 91-102.
- [21]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2] 황성자 (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 [23]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W. H. Freema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24]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Paramedic Students

Chanmi Kim¹⁾, Seungjun Kwon¹⁾, Chaeun Kim¹⁾, Youngha Park¹⁾,
Minjeong Seo¹⁾, dongsu Eom¹⁾, YoungHyeup Joe¹⁾, Insoo Lee²⁾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paramedic students.

Methods : A questionnaire was collected from 99 third and fourth grader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in the department of paramedicine at 15 universities in the first semester of 2023 and analyzed through the SPSS/windows (ver. 27.0) statistical program.

Results :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clinical practice stres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nd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1) Student, Department of Paramedicin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2) Professor, Department of Paramedicin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Conclusions : The higher the self-esteem of paramedic students, the higher the self-efficacy and less stress in clinical practice. In addition, the higher the self-efficacy, the less stress there was in clinical practice. Therefore,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in schools, such as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improv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o reduce the degree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Paramedic Students, Self-Esteem,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이인수

주소: 충북 증평군 대학로 61 한국교통대학교

전화: 043-820-5214

전자우편: islee@ut.ac.kr

김찬미

주소: 충북 증평군 대학로 61 한국교통대학교

전화: 043-820-5214

전자우편: rlccp921@naver.com

권승준

주소: 충북 증평군 대학로 61 한국교통대학교

전화: 043-820-5214

전자우편: kwonsj4260@naver.com

김채은

주소: 충북 증평군 대학로 61 한국교통대학교

전화: 043-820-5214

전자우편: marry1029@naver.com

박영하

주소: 충북 증평군 대학로 61 한국교통대학교

전화: 043-820-5214

전자우편: patrich0606@gmail.com

서민정

주소: 충북 증평군 대학로 61 한국교통대학교

전화: 043-820-5214

전자우편: tjalswjd5650@naver.com

엄동수

주소: 충북 증평군 대학로 61 한국교통대학교

전화: 043-820-5214

전자우편: eveehdtn@naver.com

조영협

주소: 충북 증평군 대학로 61 한국교통대학교

전화: 043-820-5214

전자우편: dudguq527@daum.net